

쉽이란 바로 여기, 이리다
★인터뷰 김나미

지음을 위해 비워두는 일



◀ 김나미 씨가 낸 《환속》과 《파란눈의 성자들》. 환속한 성직자와 나눔을 실천하는 외국인 성직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전문답을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 생각하지만 그 꼴을 살펴보면 현답(賢答)우문(愚問)에 가깝다. 정곡을 찌르고 멀찌감치 떨어져 혀를 끌끌 차는 현자의 답 하나가 우문을 만든 것이다. 한남동에 자리한 요가센터 '요가스라마'에서 만난 김나미(47) 씨는 '참의미의 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현자였다. 눈맞춤과 목례, 바닥에 앉아 차 한 잔을 건네받은 짧은 시간, 기자는 '쉽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문이 될 것임을 짐작했다. 느리되 간결하고 느긋하되 정확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쉽표였다. 《환속》(마음산책, 2003), 《파란눈의 성자들》(황금가지, 2004) 등을 쓴 저자이자 세계종교의 현장을 전하는 칼럼니스트며, 요가센터를 운영하는 요가지도자로 일인

다역을 감당하는 그가 여유로움을 잃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요가를 하고 글을 쓰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입니다. 마음을 모두 쏟아붓는, 참으로 행복한 몰입의 시간이지요. 환속한 분을 만나 종교에 대해 생각하고, 도인을 만나 한 수 배우고, 성자를 만나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니, 쓰는 일이 제겐 곧 배우는 일입니다. 하루 열두 시간씩 글을 쓰는데, 저는 몰라도 노트북은 다우릴 때가 곧잘있어요. 즐거운 배움이라 힘들이 이유가 전혀없지요.”
행복한 몰입이라, 첫 질문부터 우문이 된 셈이다. 어느 날 거저 쥐어지는 성찰 없듯, 김나미 씨는 고단한 생을 지불하고 그것을 쥐어들었다. 십 년 뒤쪽으로 거슬러 가보면 성직자와 도인을 만나 글을 쓰는 일이 다 무엇일까, 살아남기 위해 백병전을 치르듯 전투

적인 업무만이 그의 몫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그때가 그에게 있어 소위 '잘 나가는 시절'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랜 기간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역·번역 전문사이트 '유레카코리아'를 설립했는가 하면, 외자유치 해외펀드업무를 맡아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돈이 그의 뒤를 따르던 시절이었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가슴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나 자신들 돈의 노예로 팔아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몸과 마음이 형편없이 고장 나고 있는데 물질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그만두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요가와 명상을 통해 황폐해진 몸과 마음을 충전했지요.”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환속한 성직자, 산 속의 도인, 외국인 성직자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치열한 삶은 전과 다를 것 없었지만, 그가 쉽게 지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에 쉼을 주었던 그들 때문이었다. 《환속》《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라 하네》《파란 눈의 성자들》 등의 책은 그간의 인연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물론 그 기록에는 그가 얻었다는 점도 함께 곁들어 있다.

“돈과 명예를 좇아 혈떡거리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마음을 외면하고 사는 모습도 그러하지요. 혀가 당기는 것을 먹고, 세심히 단정할 줄 알면서도 마음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쉼을 위해 ‘떠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한 시간 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명상을 가져볼 것을 권하지요. 명상은 별 것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오늘 하루 누구를 가슴 아프게 한 적 없는가, 오늘 하루 똘을 건진 것은 없는가, 오늘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가 물어보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명상이죠. 자기를 비우는 일인데, 자기를 비우지 않고서는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그가 전하듯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것을 담기 위한 마음자리의 비움이다. 옅히고 옅힌 자리에 남는 것은 급체일 뿐, 그는 간단한 진리를 옆에다 밀쳐두고 우리가 그것을 모르쇠하며 살아왔다고 말한다. 그러고 보면 욕심에 쫓겨 비움은 미덕이 될 수 없던 세상이기도 했다. 그는 비움의 철학과 함께 십년공부 끝에 찾은 석가의 메시지도 아낌없이 들려준다.

“오랜 기간 불교를 공부했는데, 제 회두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석가가 무엇을 말하려는가를 밝히는 것이었죠. 2년 전에 그 깨달음이 왔는데,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왜 과거 때문에 현재를 못 살며,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왜 미래 때문에 현재를 죽이느냐. 결론은 Here and

now, 즉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을 위해 마음의 퇴적물을 비우고 사는 일. 각박한 일상 속에서 참의미의 쉼을 얻는 방법은 그것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행복한 몰입도 거기에 답이 있다. 이런 일상이 오래 되면 《환속》에서 그가 쓰고 있듯 “성과 속, 승과 속은 모두 하나라는 결론” “결국 현재의 ‘지금 이 순간’ 속에 성과 속이 같이 있으며 그 자체가 곧 성이자 속인 것”이라는 해찰에 또 이르지 않을는지.

그는 내년 봄이면 인도로 떠난다. 잠시의 여정이 아닌, 인도 남부의 국제공동체 ‘오로빌’에 들어가 남은 생을 보낼 계획이다. 히말라야 속의 성자들을 취재해 부지런히 원고를 쓸 것이라는데, 많은 것을 약속할 순 없지만 일흔의 나이까지 글을 쓰겠다는 것은 그가 가진 분명한 목표란다. 떠나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도 있다. 그는 요즘 여덟 살 때부터 지금까지 써온 일기를 꼼꼼히 읽고 있다. 사십 년 기록 가운데 각별했던 날, 쓸쓸했던 날, 즐거웠던 날 등을 주제별로 묶어 책으로 낼 계획이다. 인도로 떠나기 전에 글의 임자를 다 찾아주겠다는 마음.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비움의 실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다.

“나이 마흔에야 철이 들었습니다. 십대에 말없이 생각이 많아 애늬이런 소리를 곧잘 들었지만 철은 그처럼 뒤늦게 찾아왔지요. 충실하게 생을 살았다고 저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특별한 성공과 특별한 쉼, 그리고 흔치 않은 생의 마무리까지... 삶의 궤적은 별종스럽지만 기자가 만난 그는 평범한 생활인에 가까웠다. 성직자로 사는 것도 어울리겠다는 기자의 말에 “사주에 짙은 성직자의 운명을 따르지 않아 그들과 가깝게 살고 있다”고 응수하는데, 시집살이보다 더한 성직의 세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종교와 비종교를 오가며 좋은 것을 취하고 사는 일도 나쁘진 않다는 대답 역시 명쾌했다. 인도 오로빌에서 전해올 그의 전갈에 어떤 쉼이 묻어 있을지 진즉부터 궁금한 것은 웰빙에 이어 스피리추얼, 곧 정신적인 것이 주목받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그의 장담 때문이다. 그리고 더하여 그것을 잘 아는 현자가 우리 곁을 떠난다는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다.

“대저, 참의미의 쉼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쌓인 어제와 내일은 비웠느냐?”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